

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研究*

金 完 鎭

- I. 서 론
- II. 수의적 변화로서의 모음조화
- III. 이차적 차원의 예외들
- IV.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母音調和 규칙의 예외들에 대한 관찰을 목적으로 한다. 規則의 정밀화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例外란 못마땅한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깨끗하게 설명이 떨어지는 채감을 연구자는 희구하지만, 중요한 과제일 수록 例外들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白眼視 하거나 얼마 안되는 것이라는 구실로 경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오히려 어떤 자료보다도 소중하고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 例外인 것이다.

例外란 연구자의 인식 행위의 한 所産일 뿐, 엄연한 언어 사실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식된 規則 또는 논리 그 자체와 함께 질서 이외의 것으로 밀린 例外도 정확히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예외로 처리된 사실들을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현상 자체의 본질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例外란 가장 소중한 것이요 지속적으로 음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例外는 연구의 파장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는 再生産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母音調和는 국어 음운론에서 가장 일찍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흔히 국어가 알타이 제어와 공유하는 공통 특질의 하나가 모음조화라고 말하지만, 국어의 모음조화(주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토이기어나 몽고어의 그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 간명한 것이 아니다. 중성모음의 작용 양식이 전혀 다르고 상당한 제약조건하에 운용되는 것이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국어의 모음조화다. 경쟁적으로 제시되었던 모음조화의 이론이라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국어의 경우에 적용하려 하였을 때 결정적인 허점을 보인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단순한 체질의 모음조화 현상들을 토대로 엮어진 논리가 국어의 모음조화라는 복잡한 생리의 현상에 부닥쳐 난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음조화의 일반 이론이 검증되는 동시에 새로이 반성되는 자리가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이라는 말도 할 수 있다.

예외를 관찰하는 구체적인 목적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외들이라고 지목되어 온 것들을 예외의 자리에서 구제하여 정상적인 질서 안으로 수용하는 행위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수용은 연구자의 논리 체계 자체의 확충이나 개선에 의하여 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저구조 설정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음운규칙으로서의 母音調和의 성격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상당한 부류의 예외들을 질서 속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양모음을 가진 이형태를 기저구조로 채택하고 그 짝이 되는 음모음의 이형태는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 하나요, 모음조화라는 음운규칙을 의무적인 규칙으로 해석하는 대신 수의적인 규칙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하나의 길이다.

모음조화 연구의 최근의 추세에 따라 여기서도 일단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모음조화와 형태소 연결에서 생기는 모음조화를 식별한다. 여기서는 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형태소 구조 규칙으로 불리는 형태소 내부의 문제는 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어마님’, ‘보선’, ‘부화’와 같은 것은 논외로 하고 ‘업사’, ‘去는’, ‘뱃기’, ‘일우웁가’와 같은 것들만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예외의 모두를 새로운 틀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예외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예외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예외들에 대하여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예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 또는 배경을 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모음조화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예외만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 체계로 보아 모음조화를 시현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모음조화를 보이는 특이한 예외까지가 포함될 것이다.

문헌 자료를 다룸에 있어서는 시대차와 함께 개인차 및 문체차까지를 고려에 넣을 것이다. 가령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의 경우,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에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차이를 두 문헌 사

이의 시대차라고는 보지 않는다. 기껏해야 2년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모음조화의 변화 추세 일반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의 경우에는 같은 때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목에서 ‘일버사’와 ‘일버시’의 대립된 표기를 보이는데, 이것을 다같이 현실적인 발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필자의 해석 태도인 것이다. 또 같은 世祖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釋譜詳節序와 月印釋譜序 사이의 차이는 개인의 언어 질서의 변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또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II. 수의적 변화로서의 모음조화

李崇寧의 紀念碑的인 ‘母音調和研究’(1946)는 龍飛御天歌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의 통계적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글로 된 최초의 문헌이라는 뜻 말고도 모음조화의 대세를 잘 대변하는 표준적인 모델로 한 특징에 치우친 듯한 月印千江之曲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물론 후자에 와서 특히 부각되는 특징이라는 것도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龍飛御天歌의 통계 도표를 보기로 하자. ⁽¹⁾

統 計 表(一)(龍飛御天歌)

母音關係	對格 ㄴ	對格 ㄹ	絶對格 ㄴ	絶對格 ㄹ	造格 ㄴ ㄹ	小 計	集 計
아 ~ ㄴ	19+3	4+3	1	—	4	28+6	34
오 ~ ㄴ	16+8	9+2	—	—	1	26+10	36
ㅇ ~ ㄴ	7+10	4+4	1+1	—	—	12+15	27
이 ~ ㄴ	3+2	8	—	—	2	3+12	15
외 ~ ㄴ	1	3+1	—	—	—	4+1	5
와 ~ ㄴ	3	—	—	—	—	3	3
위 ~ ㄴ	3+1	3+4	—	1	—	7+5	12
애 ~ ㄴ	—	1	—	—	—	1	1
計	52+24=76	32+14=46	2+1	1	7	84+49	133

(1) 표에서 보는 1+1, 3+1 같은 표현에서 ‘+’기호 다음의 숫자는 引用例의 중복을 가르킨다. 가령 ‘宗은’으로 첫번 ‘1’이 되고 둘째 ‘宗은’으로 ‘+1’이 되는 것과 같다.

統計表(二)(龍飛御天歌)

母音關係	對格을	對格를	絶對格은	絶對格는	造格으로	小計	集計
어 ~ 으	27+8	1	1	—	2	31+8	39
우 ~ 으	9+2	4+2	—	—	1	14+4	18
으 ~ 으	13+16	—	1	—	—	14+16	30
이 ~ 으	5+8	1	—	—	—	6+8	14
의 ~ 으	—	5+1	—	—	—	5+1	6
에 ~ 으	—	4	—	1	—	5	5
위 ~ 으	1	—	—	—	—	1	1
워 ~ 으	1	—	—	—	—	1	1
計	56+34	15+3	2	1	3	77+37	114

예외로는 세 경우가 지적되어 있다.

慶을(22)

謀를(63), 王을(105)

첫번의 '慶을'은 '慶을'이 기대되는 자리에 그리고 둘째 줄의 '謀를' '王을'은 각각 '謀를', '王을'이 기대되는 곳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통계의 관점에서 보면

慶을……어~으 : 어~으 = 39 : 1

謀를……오~으 : 오~으 = 36 : 1

王을……와~으 : 와~으 = 3 : 1

이 되며, 전체적으로는 247(133+114) : 3이 되어 이른바 反則例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경미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예외로 지목한다. 비록 숫적으로는 극히 경미한 것이지만 설명이 가장 어려운 부류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불釋譜詳節序에는 이런 부류의 예외는 없는 것이다.

統計表(三)(釋譜詳節序)

母音關係	은	는	計	母音關係	은	는	計
아~으型	6	2	8	이~으型	4	6+1	10+1=11
오~으型	4	6	10	의~으型	1	1	2
와~으型	0	1	1	○위~으型	0	2+1	2+1=3
○우~으型	0	1	1	○의~으型	0	3	3
○에~으型	0	2	2	외~으型	—	1	1

李崇寧은 釋譜詳節序에서의 反則例의 현저한 증가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은, 는’의 통계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고 있다.

	(은)	(는)
어~으 型	10	4
우~으 型	4	3
으~으 型	1	
위~으 型	1	

表(三)에서 ‘○’표를 친 것이 反則例로 지적된 것들인데, 여기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으’型的 예는 ‘雖는’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은 ‘위~으’型으로 옮겨 적어야 한다. 首陽大君은 漢字들을 東國正韻式으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으’型으로 반영된 ‘曰은’의 예에서 ‘曰’자가 현실음으로 읽혔다면 ‘왈’이 되어 ‘曰은’은 ‘위~으’型 아닌 ‘와~으’型으로 反則이 되어야 한다. ‘雖’자의 경우에도 그 음은 ‘수’ 아닌 ‘쑤’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雖는’은 ‘우~으’型 아닌 ‘위~으’型이 되는 것이다. 또 ‘에~으’型的 수는 2에서 1로 줄어들어야 한다. ‘에~으’型的 한 예가 ‘界는’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자도 ‘계’ 아닌 ‘갱’로 注音符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표를 붙일 항목은 ‘에~으’, ‘위~으’, ‘의~으’의 셋으로 줄어들고 그 수치는 각각 1, 4, 3이 되는 셈이다.

결국 釋譜詳節序의 反則例라는 것은 ‘ㅣ’ 이중모음들(에, 위, 의)로 집약되는 것으로 龍飛御天歌의 反則例 ‘慶을’, ‘謀를’, ‘王을’이 통계 불가능이라 할 상황인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에, 위, 의’ 아래 陽母音 ‘은/는’이 연결된다는 것은 명사 말음의 ‘이’를 모음조화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다. 表(三)에서 ‘이~으’型的 예가 도합 11로 집계되어 있는 반면에 ‘이~으’型은 등록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

表(一)과 表(二)를 보자. ‘이~으’型이 15例, ‘이~으’型이 14例로 막상 막하의 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해 보면, 釋譜詳節序에서의 ‘이~으’型 偏在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月印千江之曲에 통한다. 釋譜詳節序에서는 적절한 對格의 예를 보일 수 없었지만, 月印千江之曲에서는 그 예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가 있다.

兄[○]님[○]을(4), 마[○]리[○]를(7), 일[○]을(9), 힘[○]을(39), 일[○]을(43), 病[○]하[○]니[○]를(44), 善[○]心[○]을(47),
 欲[○]心[○]을(47), 精[○]進[○]을(53), 마[○]리[○]를(55), 마[○]리[○]를(56), 六[○]里[○]를(59), 六[○]日[○]을(59), 가[○]지[○]
 를(63), 가[○]지[○]를(64), 바[○]리[○]를(64), 波[○]旬[○]이[○]를(67), 瞿[○]曇[○]이[○]를(67), 瞿[○]曇[○]이[○]를(73), 일[○]
 을(75), 일[○]을(80), 三[○]乘[○][성]을(84), 길[○]을(86), 바[○]리[○]를(88), 일[○]을(88), 歌[○]利[○]를(93),
 자[○]리[○]를(100), 일[○]을(101), 비[○]출[○](106), 實[○]을(106), 가[○]지[○]를(107), 마[○]리[○]를(120), 이[○]를
 사(121), 子[○]息[○]을(125), 羅[○]雲[○]이[○]를(138), 路[○]人[○]을(141), 道[○]理[○]를(144), 慈[○]悲[○]를(144),
 길[○]을(147), 각[○]서[○]를(148), 衆[○]人[○]을(158), 듯[○]가[○]비[○]를(163), —室[○]을(171), 더[○]리[○]를
 (174), 七[○]日[○]을(176), 길[○]을(178), 沙[○]彌[○]를(184), 阿[○]難[○]이[○]를(187).

이렇게 ‘을/를’이 압도적인 가운데 유독 ‘집’이라는 명사만이 ‘을’을 고
 집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색적인데 上卷 전체를 통하여 ‘지블’이 네번
 <45, 98, 168, 168> 쓰인 것이 예외의 전부다.

主題格이나 造格의 용례는 충분치 못하나 본질적으로는 對格의 경우와 다
 를 바가 없는 것이다.

慈[○]心[○]으로(71), 慈[○]悲[○]心[○]으로(76, 77), 恭[○]敬[○]心[○]으로(77), 菩[○]提[○]心[○]으로(91), 和[○]離[○]
 (130), 머[○]리[○]는(136, 2회).

‘ㅣ’이중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들도 양모음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²⁾

萬[○]歲[○]를(25), 嘉[○]瑞[○][쑤]를(27), 永[○]世[○]를(41), 미[○]퇴[○]는(70), 三[○]歸[○]依[○]를(95), 불[○]휘[○]를
 (99), 毒[○]氣[○]를(102), —米[○][메]를(104), 듯[○]귀[○]를(106), 널[○]웨[○]를(108), 偈[○]를(112, 2
 회), 술[○]위[○]는(119), 恩[○]惠[○]를(141), 禮[○]를(151, 2회), 四[○]諦[○]를(152), 偈[○]를(175), 무[○]위[○]를
 (188).

여기서는 ‘즐[○]게[○]를’ (154), ‘번[○]게[○]를’ (161), ‘祥[○]瑞[○]를’ (172)의 예에서 ‘를’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³⁾

그러나 處格의 경우에는 ‘애’보다 ‘에’가 많이 쓰이고 있다.

‘에/의’의 예 :

今日[○]에(8), 기[○]배(23), 八[○]日[○]에(74), 미[○]퇴[○]는(70), 四[○]十[○]九[○]日[○]에(85), 길[○]혜(86), 慈[○]
 悲[○]心[○]에(89), 即[○]日[○]에(147), 지[○]의(156), 미[○]퇴(157), 即[○]日[○]에(165), 지[○]의(177), 어[○]벧
 불[○]이(183).

(2) 都守熙(1970)에서는 V_r를 중성모음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漢字들이 改新音으로 읽히는 것임을 옳게 지적하고 있다.

(3) ‘祥瑞를’의 표기는 ‘瑞’의 현실음 ‘서’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嘉瑞를’의 예를 참조

‘애’의 예 :

雪山苦行林애(55), 慈悲心애(139).

그러나 月印千江之曲의 특색은 용언 어미에 ‘있어서의 陽母音 選好의 경향이다. 龍飛御天歌에서 이미 단일례어기는 하지만, ‘一間 茅屋도 업사’에서 ‘업서’에의 기대를 배반한 反則例가 있음을 알고 있는 터이니지만, 그에 필적할만한 것을 月印千江之曲은 꽤 많이 보여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필자는 ‘일버사’(盜)의 예를 꼽는다. 제 3장에

五百前世怨讐 | 나랏천 일버사 精舍를 디나아가니

의 일절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釋譜詳節(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月印釋譜 I, 6)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도죽 五百이 그윽거슬 일버사 精舍사 겨트로 디나가니

같은 月印釋譜 안에 수용하면서도 ‘일버사’와 ‘일버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千江之曲과 詳節에서의 모습을 유지한 것이라 해석케 되는데, 이것은 이 단어가 ‘일버사’와 ‘일버사’ 양쪽으로 다 발음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世宗과 世祖 父子間의 이 表現差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하는 대로 世祖(首陽大君)이 지어 바친 釋譜詳節을 世宗이 보고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 하면, 世祖의 ‘일버사’를 보면서 世宗은 ‘일버사’라 적은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차이가 世代差에 말미암은 것일까, 일단은 자문해 봄직하지만, 그보다는 취향의 차이라 할만한 것으로 굳이 이름 붙인다면 文體論的인 차이라 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도 ‘일버사’식의 표기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버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요, 世祖도 가다가는 ‘일버사’형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35장에서의 ‘이샤’와 ‘이셔’의 공존 상황부터 살펴보자.

흐 머리 자저늘 / 흐 머리 ㅁㅁ 이샤 / 도흐 꽃 머거 / 늬을 爲하니
 두 머리 ㅁㅁ 이셔 / 흐 머리 ㅁ 자라 하야 / 모던 꽃 머고 / 저도 주그니

같은 ‘이시-’(在)의 활용이지만, 앞에서는 ‘이샤’라 하고 뒤에서는 ‘이셔’라 적고 있는 것인데, 이 구별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샤’와 ‘이셔’가

놓이는 운율론적 자리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이 ‘이샤:이셔’의 경우에는 ‘이시-’의 어간말 모음이 중성모음 ‘이’이니까 ‘이샤’와 ‘이셔’가 다 가능한 반면에, ‘일버샤:일버셔’의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이 ‘어’이니까 문제가 전혀 다르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성모음 ‘이’ 아래에서인 것 같이 두 모습을 다 보여 준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千江之曲의 비슷한 예들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路中에 ㅍㅅㅅ(7)
- 지조를 ㅁㅅ(38)
- 늦 고비 ㅂㅅ(49)
- 큰 龍을 ㅅㅅ(76)
- 尊者ㅅ 머리에 연자놀(76)
- 길홀 ㅁㅅ(86)
- 주춧 사르물 더(123)
- 三毒이 업ㅅ(124)
- 本來ㅅ性의 ㅁㅅ(126)
- 舍利弗의그에 무(153)
- 舍利弗을 업ㅅ(155)
- 舍利弗을 ㅁㅅ(157)
- 王ㅅ알ㅅ(155)
- 우수물 우ㅅ(168)
- 모던 ㅅ을 ㅍㅅ(188)
- 골 업ㅅ ㅅ을 ㅅㅅ(188)
- 보비엣 고지 드(192)

이만한 분량의 예들이면 이미 단순한 오식 오자일 수는 더 더욱 없고, 설명 없이 지나칠만큼 경미한 反則例들일 수도 없다.⁽⁴⁾

이런 관점에서 보면 龍飛御天歌의 ‘民望을 일우오리라’, ‘天心을 일우오리라’(108)에서의 ‘오’(의도형)도 ‘업ㅅ’의 용례에 비견될 反則例임을 알 수 있다. 月印千江之曲에서도 ‘ㅁ 일우ㅅ갓 疑ㅅ이’(53), ‘모던 ㅅ들 일우오러터니’(72)에서 같은 용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오

(4) 정상적인 활용례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淨飯이 ㅁㅅ(15)
- 지블 지ㅅ(98)
- 阿鼻地獄에 드러가니(130)

히려 모음조화에 맞게 ‘일우우리’ 처럼 ‘으’ 쓰인 경우를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우우터’와 같은 표현에서는 ‘우’의 중복 실현이 목격된다.) 음모음 아래서의 ‘오’의 실현으로는 다음 것 하나가 더 있다.

비블음도 훈가지러니(135)

그러나 釋譜詳節에서는 ‘法 드로물’ (六, 11), ‘것구오려’ (六, 27), ‘그 싯드려 무로터’ (六, 14) 등 상당한 수의 유례들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로터’의 용례는 무수히 되풀이되어 나온다.

이른바 媒介母音에도 이와 비슷한 용례들이 있다. 의당 어간말 모음에 따라 ‘으’로 적힐 것이 기대되는 곳에 ‘오’가 쓰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저ㅎ샤(46), 슬ㅎ실둘(56), 슬ㅎ샤(61), 업스니이다(137).

음모음 어간에 매개모음이 연결되는 경우가 上卷 전체를 통하여 50을 헤아리는데 그 가운데 네개이니까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매우 적은 양의 것이지만, 이러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받침이 ‘ㅎ’과 ‘ㅅ’인 것에 한정된 것이 우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니, 龍飛御天歌에서의 이 종류의 예외가 ‘경-’ (畏)에 국한되는 것을 상기케 된다.

저ㅎ샤(15), 저ㅎ니(59), 저ㅎ샤(99)

중성모음의 어간에 대해서도 ‘오’를 보이는 것이 ‘ㅎ, △, ㅅ’ 받침의 것에 한정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것이다. (5)

니수샤물(5), 니츄실씨(59), 니츄니(77), 니츄샤(141), 비ㅎ니(188)

‘슬ㅎ샤’, ‘저ㅎ샤’, ‘비ㅎ니’의 경우 특히 끝의 경우에는 ‘ㅎ-’와의 연관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ㅅ’, ‘△’, ‘ㅅ’은 그렇게 연상이 작용할 대상은 없다. 그러나 특히 ‘업스니이다’의 경우는 ‘업사’로의 실현과 함께 매우 빈

(5) ‘오’를 보이는 것들을 약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프실씨(8), 것그지니(23), 기틀씨(31), 지르지니(79), 니브샤(141), 지스니(168)

도가 낮은 실현이라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대개의 경우 ‘업스’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업스실씨’(4), ‘업슬씨’(26), ‘업스시니’(53), ‘업스샤’(110), ‘업스신가’(120), ‘업슨’(188)…등

月印千江之曲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일련의 관찰을 요약해 보자. 전반적으로 음모음이 을 자리에 양모음이 오고 있는 ‘反則例’들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나열의 순서가 지금까지의 관찰의 순서와는 다르다.)

첫째, 용언 어미 ‘아/어’의 실현에 있어 음모음 어간에 ‘아’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용언어간에 대한 매개모음 ‘으/으’의 연결에 있어서도 위의 내용과 같은 예를 볼 수 있으나, 숫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셋째, 중성모음 ‘이’를 말음절에 가진 명사들의 주제격, 대격, 조격은 양모음계의 ‘은/는’, ‘을/를’, ‘으로’로 실현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더하여 명사 말음절이 음모음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받모음 y를 가지면 ‘이’의 경우와 같이 양모음 ‘으’를 지배한다.

넷째, 같은 조사이지만 처격의 경우에는 ‘애/의’보다는 ‘에/의’가 ‘이’아래서 훨씬 많이 쓰인다.

다섯째, 용언 어간의 말음절이 ‘이’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어미에 양모음 음모음이 다 올 수 있으나 음모음으로의 실현이 현저하게 우세하다.

이것을 기호를 써 가며 도시하면 다음과 같아질 것이다.

活用：

어미 ‘아/어’ $B+B(b+a)$ $C+B(c+a)$

어미 ‘으/으’ $B+B(b+a)^*$ $C+B(c+a)^*$

曲用：

조사 ‘애/에, 의/의’ $B+B$ $C+B(c+a)^*$

조사 ‘으/으’ $B+B$ $\begin{cases} C+A(c+b)^* \\ B_y+A(b_y+b)^* \end{cases}$

주의：大文字 A, B, C는 주도적인 실현, 小文字 a, b, c는 예외적인 실현, ‘*’ 표시는 현저한 弱勢를 표시한다.

이것을 모음조화의 기본적 틀과 대조하며 생각하자(A/B는 A 또는 B의 실현).

A+A A+C
 B+B B+C
 C+A/B

우선 B+B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曲用의 경우 뿐이고 活用에서는 b+a가 공존한다. C+A/B는 C+B와 C+A로 갈리는데 活用은 C+B에 c+a의 공존으로 설명되는 반면, 체언은 C+B와 C+A로 갈리면서 각각 c+a와 c+b를 거느린다. 여기서의 C+A는 B_y+A를 동반한다.

A+C와 B+C를 논의로 한다면, 위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빠뜨린 것은 A+A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a+b 같은 예외적 실현을 배제하는 것이 月印千江之曲의 질서인 것이다. 물론 ‘밭과’와 같은 경우가 약간 있지만, 이것은 다음 장에 가서 다룰 것으로 여기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 또 ‘玉을’ ‘謀를’과 같은 龍飛御天歌의 경우가 月印千江之曲에는 없다는 것도 밝혀 둔다.

그렇다면 문제는 B+B의 경우로 압축된다. 음모음 아래에 음모음만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왜 b+a의 실현이 목격되는가. 우리가 항용해 오는 표현,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만난다는 표현을 모음조화에 대하여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b+a는 영원히 예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즉, 예를 들어 용언의 부사형 어미 ‘아/어’의 경우 ‘아’와 ‘어’라는 두 이형태를 대등한 것으로 대접하면서, 양모음 어간에는 ‘아’가 음모음 어간에는 ‘어’가 선택된다고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없+아→업사’ 같은 경우란 결국 잘못 만난 경우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잘못만남이 가끔 생기는가, 그리고 왜 그 반대 경우로서의 A+B 즉 ‘잡+어→자버’와 같은 잘못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6)

두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어미나 조사의 두음은 모두 양모음으로 되어 있

(6) 田相範(1975:35)는 위에 말한 선택적 질서를 가장 잘 형상화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eft[\begin{array}{c} V \\ -front \end{array} \right] \rightarrow [\alpha \text{ back}] \left/ \left\{ \begin{array}{c} V \\ \alpha \text{ back} \\ \left\{ \begin{array}{c} [-front] \\ [+front] \end{array} \right\} \begin{array}{l} (a) \\ (b) \end{array} \end{array} \right\} [-syl]_0 + \right.$$

$$\left. \left(\left[\begin{array}{c} +son \\ +cons \end{array} \right] \right) \text{ } ______ [+seg] + \right.$$

: (b) is optional

다고 보는 것이 그 하나니, 음모음의 짝들은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으로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A+A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변화를 입음이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임에 반하여, B+B는 B+A→B+B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업서’를 예로 들면, ‘없+아→업사→업서’의 과정을 밟아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음조화의 규칙 적용이 수의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립이니, 모음 조화의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성질의 것으로 B+A→B+B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 B+A인채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성취하여야 한다. 즉 B+A의 상태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업사’라 한다면 거기에 모음조화의 규칙을 적용하여 A를 B로 전환시켜 발음하는 것이 ‘업서’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현대어의 경우에서 찾아 보자. 흔히 움라우트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음운변화에서 우리는 후행하는 모음 ‘이’ 또는 반모음 ‘y’가 선행하는 후설모음의 전설모음으로의 전환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다.

아기→애기, 아비→애비
 어미→에미, 두꺼비→두께비
 말기다→매끼다, 아끼다→애끼다
 먹이다→메기다, 넘기다→냉기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미’, ‘먹이다’를 그대로 발음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에미’나 ‘메기다’와 함께 훌륭한 한국어 발음이 됨에 아무 하자도 없는 것이다. 일선의 교육에서는 오히려 이처럼 움라우트를 적용하지 않는 발음이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에 입각한 정서법의 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성문화된 정서법을 가지지 않고, 또 규범적인 교육에서 움라우트의 적용을 금지하는 훈련을 모른다 하자. 그리하여 각자가 제 실제 발음대로 표기에 임한다 하면, 움라우트의 영향권 안에 든 말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원형적인 표기가 나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世宗代의 모음조화가 우리 시대의 움라우트 현상에 비견될 성질의 것이었

다고 할 때, 특히 表記傳統 없이 새 문자에 의한 우리말 書寫에 임하였을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음조화 적용후의 어형이 표기의 대세를 잡았을 것은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다가는 규칙 적용 이전의 형태가 나와 龍飛御天歌의 ‘업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겠지만, 保守的 발음 性向의 사람, 예컨대 世宗 같은 인물의 표기에서는 그런 종류의 표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점잖은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와, 사적인 자리, 무관한 자리에서 말할 때, 동일한 단어의 발음이 ‘아기 : 애기’, ‘먹이다 : 메기다’ 식으로 달리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라 하더라도, 또는 같은 개인이 쓴 책에서라 하더라도, 두 유형의 발음이 같이 발견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기이한 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지금과 같은 思考의 전환에 의해서 해묵은 짐의 태반은 떨어진다. ‘업사’도 ‘업스니이다’도, ‘드라’도 ‘저ᄃᆞ샤’도 더 이상 구제 불가능한 예외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가 질서 안의 몇몇한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헌에 따라 이른바 反則例가 많고 적은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사’ 하나가 그 유형에서는 의로운 예이지만, 月印千江之曲에서의 ‘업사’, ‘드라’, ‘우샤’ …등에 뒷받침되는 이상, 그것은 결코 誤記로 의심받을 것도 또는 처치곤란한 구박덩이일 까닭도 없다. 크게 보아 같은 질서 안의 차이일 뿐이니, 굳이 구별한다면 表記者의 성격차 또는 문제차가 논의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제기했던 ‘일버샤 : 일버셔’의 과제에 되돌아가 말한다면, 世宗이 ‘일버샤’나 世祖의 ‘일버셔’가 다같이 정상적 질서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표기라고 끝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B+B형의 실현이 체언의 범주에서 더 철저하고 용언의 경우에 수의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어떤 범주의 차이에 따라 음운현상의 성취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왕왕 목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성모음 ‘이’ 아래서의 B의 실현을 놓고 보면 체언에서 약하고 용언에서 강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래의 패턴 C+A/B에 따르면 ‘이’ 다음에서 A와 B는 자유로와야 하고, 龍飛御天歌에서는 대체

로 이 논리가 통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月印千江之曲 및 釋譜詳節의 ‘으 : 으’ 체계에서는 체언의 경우 철저한 양모음 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음모음+y’의 하강 이중모음에서의 y까지가 ‘이’와 같이 B 아닌 A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용언의 경우에 있어서는 B 즉 ‘으’로의 실현이 압도적이다. 물론 체언에서의 C+A의 우세는 A가 ‘으’일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처적에서는 판도가 바뀐다.

V_y형의 이중모음에서의 y의 기능도 용언의 경우에는 음모음 쪽으로 기운다. 심지어 ‘애’, ‘이’, ‘외’ 같은 양모음계의 y까지가 어미에 B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경우까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드외야 : 드외어

내야 : 내어

글히야 : 글히어

이들 일련의 미시적 문제들은 다음 장에서의 과제와 함께 좀더 자세히 관찰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Ⅲ. 이차적 차원의 예외들

앞의 장에서는 종래의 통념으로 보아 의당 음모음이 올 자리에 양모음이 온 것으로 여겨지는 ‘反則例’들을 주로 하여 다루었거니와, 여기서는 반대로 의당 양모음이 와야 할 자리에 음모음이 나타나는 경우들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龍飛御天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陰謀[○]를(63), 嗣王[○]을(105)

子孫之慶[○]을(22)

城[○]밖기(69), 東門[○]밖기(89)

‘밖기’의 경우는 月印千江之曲에서도 ‘밖긔 그르메’(15)를 보이고 釋譜詳節에서도 ‘밖긔 나아 건너더시니’(六, 20)로 나타나 초기의 세 문헌에 공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에 든 대적 조사에서의 混同은 千江之曲~詳節의 선에서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世祖라는 同一人物이 쓴 釋譜詳節序와 月印釋譜序를 대비시켜 보면 놀랄만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것이 1447년에 쓰여졌고 뒤

의 것이 1459년에 쓰인 것이니까, 그 사이의 간격이 12년에 불과하여 언어 질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의 차이는 놀랄만큼 뚜렷한 것이다. 俠註에 무수한 유례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諺解 本文의 경우만을 순서에 따라 제시해 보기로 한다.

緣^ㅇ(3), 威光^ㅇ(7), 門[문]^ㅇ(8), 解脫門^ㅇ(8), 두 글워^ㅇ(12), 호두^ㅇ(20), 무루^ㅇ(20), 德本^ㅇ(24).

두번 나온 ‘門^ㅇ’의 경우에는 현실음 ‘문’에 이끌린 표기라고 할지 모르고, 또 ‘글워^ㅇ’의 경우에는 ‘글왈’ (釋譜序 4에 나온다)에 이끌렸다고 변명될 지 모르지만, 나머지 예들은 무어라고 더 옹호할 길이 없다.

月印釋譜序 本文의 언해에는 주제격의 용례가 없지만, 협주에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의 혼란은 극심하다는 표현을 쓰기에 알맞다. 대격의 경우들은 생략하고 주제격에서의 反則例만을 열거하거니와 이것으로 혼란상은 자명해질 줄 안다.

夫^ㄴ, 眞源^ㅇ(1), 去^ㄴ, 動^ㅇ(2), 寂^ㅇ(5), 降誕^ㅇ, 兵^ㅇ(6), 合^ㅇ(7), 解脫^ㅇ, 句^ㄴ, 舍^ㅇ(8), 榮養^ㅇ, 攸^ㄴ, 汝^ㄴ(10), 覃^ㅇ(11), 覽^ㅇ, 頌^ㅇ, 于^ㄴ, 崇^ㅇ, 奉^ㅇ, 曷^ㅇ(13), 父^ㄴ, 本^ㅇ(14) 仰^ㅇ(16), 仙^ㅇ(17), 雲^ㅇ, 頓^ㅇ, 覺^ㅇ, 講^ㅇ, 舊^ㄴ(18), 更^ㅇ, 去^ㄴ(19), 博^ㅇ, 問[문]^ㅇ(20), 根[근]^ㅇ, 數^ㄴ, 究^ㄴ, 窟^ㅇ(21), 讀^ㅇ, 留^ㄴ(22), 두문, 觀^ㅇ, 難^ㅇ, (23), 黜^ㅇ, 威^ㅇ, 朽^ㄴ(24), 歲有^ㄴ(25)

이러한 혼란은 관찰자를 당혹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소수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龍飛御天歌에서 발견된 대격에서의 혼란과 맥을 같이 하면서 月印 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을 건너 뛰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한 일의 하나요, 같은 ‘으 : 으’의 대립이 용언 어미에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이상한 일이다.

같은 月印釋譜序에서의 예들이지만, 용언 어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브^ㅇ틀씨라(2), 가^ㅇ풀씨니, 구^ㅇ즌, 브^ㅇ틀씨라, 어드^ㅇ불씨라(3), 붓^ㅇ줍씨라, 버^ㅇ슬씨라, 조^ㅇ홀씨라, 슬^ㅇ혀^ㅇ씨니라(4), 일^ㅇㅋ^ㅇ롤씨라, 자^ㅇ븐, 너^ㅇ블(6), 그^ㅇ즌, 머^ㅇ구^ㅇ블(8)……

이 혼란이 격조사 특유의 것, 그 가운데서도 주제격과 대격에 특유의 것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혼란을 배제한 질서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괴리의 배경이 과연 무엇

인가에 대하여는 좀더 다각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推理를 펴 본다. ‘으 : 으’의 혼란을 모르는 것 즉, 千江之曲과 詳節의 상황이 일반 언어 질서의 반영인 반면에 그것을 조사에서 혼동하는 것은 識者層의 독서 관습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漢文을 읽을 때 ㅈ를 달면서 읽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거니와, 주제격이나 대격의 조사는 그 이형태들의 식별없이 ‘隱’과 ‘乙’로 대표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맥락에 따라 ‘은/은, 는/는’ 또는 ‘을/을, 를/를’로 읽히는 것이었기에 여기서 혼동이 배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용언 어미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던가. 口訣文 또는 吏讀文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언해에서 관형사형이 될 부분에는 보통 토를 붙이지 않고, 또는 붙인다 해도 ‘훈, 훈신’(爲隱, 爲賜隱)을 붙이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격조사에 있어서와 같은 혼동이 생길 소지는 없다. 부사형의 경우에도 ‘爲尼’, ‘爲古’와 같이 토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은 같다.

言言이 攝無量妙義^ㅎ시고 句句 | 舍恒沙法門^ㅎ샤
放大威光^ㅎ샤 破魔兵衆^ㅎ시고

이러한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조사에서의 ‘으 : 으’의 혼란은 음운 체계나 모음조화의 機制 안에서 발생해 나온 현상이 아니라 체계외적인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헌의 표면만을 훑어 세종 27년에 존재하던 혼란이 29년에는 슬어지고 그 12년 뒤인 세조 5년에는 다시 왕성해졌다고 말한다면, 또는 조사에서의 ‘으 : 으’를 잘 식별하던 세조가 12년 뒤에는 그것을 마구 혼동할만큼 개인의 언어체계에 큰 변화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설명이라 할 것이다.

月印釋譜 안의 月印千江之曲의 협주는 釋譜 편찬시에 추가된 것이 분명함으로 月印釋譜序와 같은 단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序에서와 같은 혼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月印釋譜의 편찬이 형식적으로는 세조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과는 달리 왕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협주까지 일일이 손대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月印千江之曲의 협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459년에 조사에서의 ‘으 : 으’의 질서를 바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점

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밧긔’의 과제로 옮겨가자. 초기의 세 문헌이 모두 ‘밧긔’ 아닌 ‘밧긔’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필자가 현존하는 석보상절을 모두 점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단언까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남긔’에서와 같은 ‘긔’가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히 특이하다.

필자는 여기서 ‘ㅅ’의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처격이면서 속격적인 형태 ‘의/의’를 취하는 명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처격이면서도 *‘밧개’로 실현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양모음 아래에서 ‘긔’를 예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ㅅ’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ㅅ’ 단독으로는 그럴만한 힘을 가졌다고 하기 어렵지만 ‘ㅅ’의 영향하에 口蓋化된 ‘ㄱ’과의 협력으로 ‘으←으’의 전인이 어말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른바 特異處格 형태의 생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자. ‘에/에’가 올 자리에 ‘의/의’가 오는, 일종의 모음 상승화 현상에 의하는 것이라 할 이 특이 형태가 명사 끝의 자음 또는 자음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그것만으로 완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한 쌍의 예는 음미해 볼 만한 것이다.

……이 그혜(보기: 阿難이그혜)

……ㅅ긔(보기: 부텃긔)

앞에 속격의 ‘의/의’가 오고 있을 때에는 의존명사 ‘그’에 ‘에’가 후속되는데, 그 명사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일 때에는 ‘의/의’ 대신 ‘ㅅ’이 속격으로 쓰이면서 ‘그’에 ‘의’를 후속시킨다. 여기서 ‘에’를 ‘의’로 상승시키는 것은 ‘ㅅ’의 개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⁷⁾

이상으로 龍飛御天歌를 중심으로 한 母音調和의 예외에 대한 논의는 끝난다. 그러나 千江之曲과 詳節의 자료들을 놓고 볼 때에는 언급되어야 할 다른 예외적 용례들이 더 남아 있다. 우선 현재형의 ‘ㄴ’이 ‘느’으로 실현되

(7) 터어키어의 아오리스트 시제에서의 모음 상승화가 어간말 자음 r, l과 관련이 깊은 것을 상기시킨다.

Er→Ir

git→gider yaz→yazar

al→alır gel→gelir

ol→olur gör→görür

고 있는 다음의 경우들을 보자.

혀는 불 ㅂ는 불 (月曲 106)

대를 엇겨 부는 거시라(詳節 十三, 53)

우는 소리(詳節 十九, 14)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들은 모음조화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예들에서는 ‘ㄴ’가 어간의 음모음에 동화되어 음모음 ‘ㄴ’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예외적인 실현예들이지만, 모음조화의 힘의 확장을 시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8)

다음의 예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 흥미로운 것이다. (어간 ‘ㄷ외-’는 ‘爲’의 뜻. 보기는 釋譜詳節 六卷의 예들)

ㄷ외에(1), ㄷ외의(7), ㄷ외히(31)

이 어미 형태소의 기본형이 ‘게’인 것은 분명하다. 특이체격의 경우에 방불하게 모음의 상승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조건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ㄹ게, ㄱ특시궤, ㅋ궤, ㅌ궤, …).

‘ㄷ외’의 말음이 y이기 때문에 이른바 ‘ㄱ’의 탈락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미 ‘고:오’, 조사 ‘와:과’가 다 같이 모음조화를 모르는 것처럼, 모음조화에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ㄷ외에→ㄷ외의’까지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ㄷ외히’는 예상외의 것이 된다. 작은 예외적 존재로서 ‘ㄴ→는’에 준하는 현상 같지만, 조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이 다르다. 우리가 이 작업에서 힘들여 수립한 것이 모음조화 작용의 일방성, 즉 $B \rightarrow A$, $*A \rightarrow B$ 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인데, 혹 $B \rightarrow A$ 의 대세 아래 태어난 한 반작용(rebound)이라 한다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다.

轉成의 접사, 또는 새로운 어간 구성에 관여하는 접사들은 자음으로 시작

(8) 어미 ‘-아닐/어늘’의 교체는 좀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하야닐	머거늘
보내야닐	되어늘

‘-아닐’을 ‘아’와 ‘닐’로 분석하면 ‘닐’이 자음으로 시작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모음조화의 대상 밖의 것이 되며, 그것을 한 단위 형태소라 하더라도 모음조화의 힘은 첫 음절에 그치는 것이므로 ‘닐’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조격의 ‘으로’의 경우 ‘오스로’, ‘쁘드로’와 같이 ‘로’가 불변음을 환기할 일이다.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음조화에 순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물론 명사에 붙는 ‘들’이나 ‘내’ 같은 접사들은 대상 밖이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것만이 모음조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질서는 서두에서 우리가 일단 제쳐 놓기로 한 형태소 구조 규칙으로서의 모음조화 즉 형태소 내부에서의 모음조화의 질서에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언어들의 모음조화를 다루면서 지금과 같은 과제에 봉착했던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단순히 형태소 내부에서의 문제와 형태소 연결에서의 문제로 양분하여 모음조화를 말한다면, 국어의 경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과 같이 어간 형성의 접사들은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면제 받으면서 모음조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서술해야 하지만, 국어의 자료들은 어간 내부의 모음조화에 대하여 그것이 단일 형태소 안에서의 일이건, 형태소의 연결에 의한 것이건, 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범주의 현상으로 다룰 수도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모음조화에 순응하는 경우를 특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메탄-’과 같은 복합 어간을 설명해야 하는 다른 짐이 생긴다.

모음조화와의 관련하에 관찰의 대상이 되는 접사의 종류는 많지 않다. 동사 어간에 붙어 명사를 만들어 내는 ‘개/계’, 타동사 형성의 ‘오/우, 호/후’, 동사 어간에 붙어 형용사를 만들어 내는 ‘브/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개/계 : 날개(翼), 들개(蓋), 울애(雷), ...

오/우(호/후) : 노초다, 슬우다, 일우다, ...

브/브 : 쪼브다, 뒤웃브다. 아치얼브다. 애밭브다.

끝에 보인 ‘애밭브다’의 예는 특이하다. ‘애밭븐(月曲, 143), 애왁븐(詳節六, 5) 등의 文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는 모음조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밭’에 모음조화를 억제하는 힘이 있는 것인지(이러한 상정은 자의적이다), 아니면 ‘브/브’의 기본형이 본래 ‘브’ 아닌 ‘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장의 끝맺음으로서 중성모음 ‘이’의 중성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모

음 ‘이’의 특성은 모음조화 기제에 있어서의 중립성, 즉 C+A/B, A/B+C의 성격과 전설 고모음으로서의 음모음에의 가세에 있다 하겠는데, 전자를 음운론적 성격, 후자를 음성학적 성격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말하여 ‘이’가 형태소 말음일 때에는 그 음성학적 성격이 부각되고 뒤에 자음이 있을 때에는 그 중립성이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디-’ (落)의 활용에 있어서라면 ‘디+어→더’이지 ‘디+아→*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처격의 ‘애/에’가 ‘이’모음 아래에서 ‘예’로 중화된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이’가 주제격의 ‘은/은, 는/는’, 대격의 ‘을/을, 를/를’과 연결됨에 있어, 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모음 ‘으/으’와의 사이에 자음을 가지는 데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으/으’의 직접적인 연결은 불가능하다.)

y[i]가 ‘이’와 같이 처격 ‘예’의 형성에 공헌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소시예 : 바회예), 우리가 月印千江之曲에 대하여 관찰한 바와 같은 ‘이’모음 아래에 오는 주제격 대격에서의 ‘으’ 편향에 음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루는 y까지가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매우 특이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IV. 결 론

例外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現象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비록 많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방치될 수 없는 것이 例外요, 그것들의 존재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現象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母音調和의 예외들을 검토하였다.

대상은 우선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으로서의 모음조화에 한정하고,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 즉 형태소 구조 규칙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논외로 하였다. 자료는 초기의 세 문헌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 및 釋譜詳節을 주로 하고 月印釋譜를 가끔 참조하였다. 기본적으로 共時論的인 인식에도 모하는 작업이었기에 그 이후의 문헌 자료들을 참조하는 것은 이를 삼가하였다.

문헌에 따른 차이를 사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였

다. 세 문헌이 세종 27년과 29년의 저술이라면 그 시간적 간격은 의미 있는 것이 못된다. 그보다 12년 뒤에 쓰여진 月印釋譜序에 대해서도 釋譜詳節序를 썼던 世祖의 글이라는 점을 더 重視하였다.

따라서 어사 또는 형태소들의 여러 다른 실현은 똑같이 현실적인 것이며, 母音調和의 설명 논리는 그 모든 것을 포섭하고 만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는 태도로 임하였다.

모음조화에 관여하는 문법 형태소들,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들은 기저구조에서 양모음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일로부터 출발하였다. 종래에는 형태소 내의 모음조화 질서, 예컨대 조격의 ‘으로’의 경우, 두음을 ‘으’로 해야만 내적인 모음조화가 유지될 수 있지, ‘으로’로 해서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로 매달렸던 것이지만, 지금은 예외의 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그 태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예외의 대체가 음모음에 대한 양모음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반대의 결합에 의한 예외는 그 존재 이유가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수의성과 일방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모음조화의 규칙이 일방성의 것이며 수의적인 것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의하여, 예컨대 ‘일버사’에 대한 ‘일버사’도 정상적인 어형으로 구제된다. ‘잘못된 어형’이라느니 일부러 모음조화를 어겼느니 하는 ‘비난’이나 ‘억측’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언어 질서는 결코 박제와 같이 경직된 것일 수 없다. 탄력성을 지니고 있기에 개인에 따라, 책에 따라, 또는 같은 개인 같은 책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실현된다. 그러면서도 그 차이들이 동일한 질서 안에서의 실현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장에서는 모음조화의 기본적 틀로써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의 이해를 위해 몇가지 과제들을 다루었다. 양모음과 음모음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에 특히 주의하였다. 지식인들이 친숙해 있던 借字表記의 영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특수한 음성환경에서의 전인작용으로 하여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있다. 그러나 ‘애왈브다’의 ‘브’와 같이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다.

餘言으로 母音調和의 역사에 대하여 언급할 자리에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방향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 줄 만한 사실을 찾은 것은 아직 없다고 말하는 것

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고대 국어가 오늘날의 月城(慶州) 지역의 방언과 같이 본래는 모음조화를 모르던 것이 어느 단계부터인가 이를 발전시켜 겨우 우리가 본 바와 같은 그리 강하지 못한(알타이 제어의 경우와 비교하여) 모음조화를 성취한 것인지, 거꾸로 15세기의 모습이 상당히 약화된 말기적 상황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만한 증거는 아직 찾아지고 있지 않다.

비록 단편적인 경우이지만, 借字表記에서 ‘置’字를 ‘도’로 읽게 하고 있는 것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도 모음조화의 대상이 되었었다고 할 때, 설명이 더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해 하는 존재다. 중세어에서와 같은 단일형의 형태소였다면 ‘도’를 나타내는 데 과연 ‘두’가 쓰였을까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都’ 같은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과제에 대한 사고에 참조될 작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正負 두 방향에 차근차근 쌓아 갈 때, 어떤 光明에 도달할 날이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두 방향에서 자료와 생각을 모아 견주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完鎭(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 10.
 都守熙(1970), 母音調和의 誤算 問題, 국어국문학 49·50.
 李基文(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象과 課題, 東洋學 9.
 李相億(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20, No. 4.
 李崇寧(1947), 母音調和研究, 震檀學報 16.
 田相範(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汎韓書籍株式會社.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 出版部.
 洪允杓(1969), 十五世紀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 21.